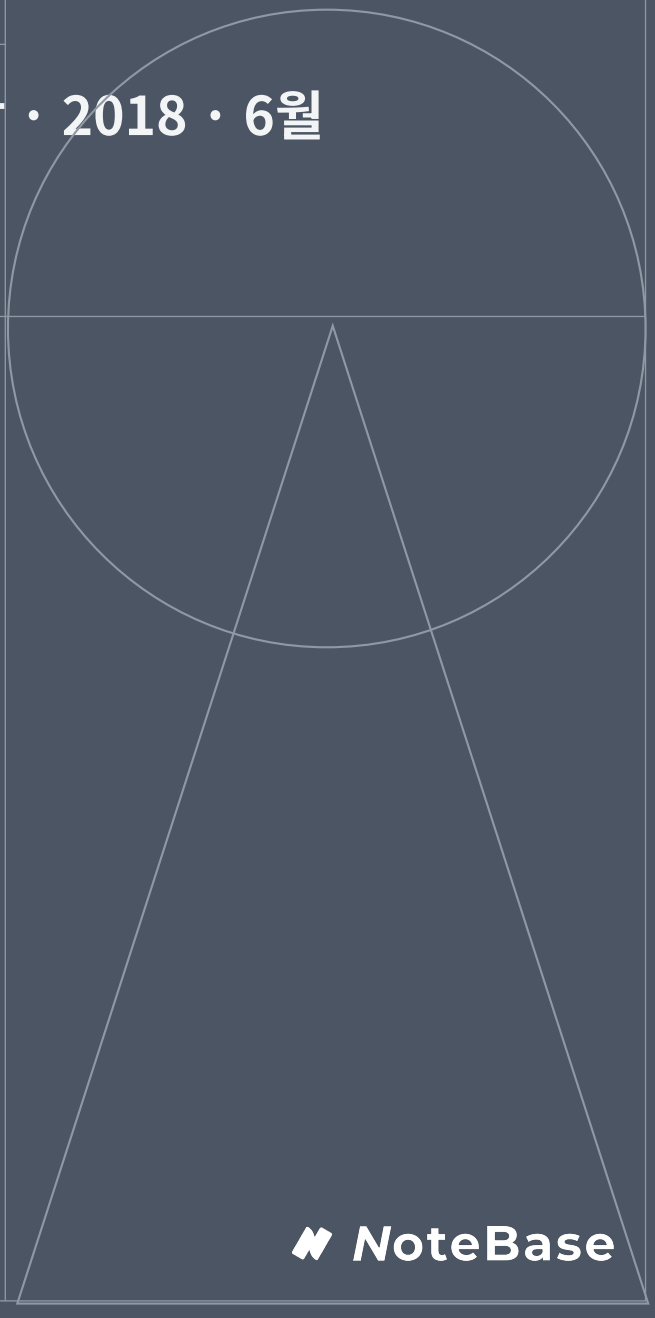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8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8 · 6월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8 · 6월

문 1. (주)서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재평가모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토지의 취득원가와 각 회기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보기>와 같다. 토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20X3년에 인식할 당기손실과 총포괄손실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구분	취득원가	각 회계기간 말 공정가치		
	20X1년 초	20X1년 말	20X2년 말	20X3년 말
토지	₩2,500	₩3,000	₩2,700	₩2,300

① 당기손실 ₩400 총포괄손실 ₩0

② 당기손실 ₩300 총포괄손실 ₩100

③ 당기손실 ₩300 총포괄손실 ₩400

④ 당기손실 ₩200 총포괄손실 ₩4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에서 토지의 재평가감소액을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과 비교하여 기타포괄손실과 당기손실로 나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8 · 6월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2,500원
20X1년 말 공정가치 3,000원
20X2년 말 공정가치 2,700원
20X3년 말 공정가치 2,300원

구해야 할 값:
20X3년에 인식할 당기손실과 총포괄손실

주의할 조건: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재평가감소는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까지 기타포괄손실로 처리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사용할 공식

재평가감소액 =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 재평가 후 금액
재평가감소액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는 기타포괄손실, 초과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공정가치 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감소분의 손익 귀속은 누적된 재평가잉여금 잔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X1년에는 $3,000 - 2,500 = 500$의 재평가증가가 발생하므로 기타포괄이익 500이 누적되어 재평가잉여금 500이 생긴다.
2. 20X2년에는 $3,000 - 2,700 = 300$의 재평가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기존 재평가잉여금 500 범위 안이므로 전액 기타포괄손실로 처리되고,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200이 남는다.
3. 20X3년에는 $2,700 - 2,300 = 400$의 재평가감소가 발생한다. 이 중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200은 기타포괄손실, 나머지 200은 당기손실이다.
4. 따라서 20X3년 당기손실은 200이고, 총포괄손실은 당기손실 200과 기타포괄손실 200을 합한 400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8 · 6월

선지별 해설

① X
20X3년 재평가감소액은 400이지만,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200을 먼저 기타포괄손실로 처리해야 하므로 당기손실이 400이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당기손실 400 총포괄손실 0'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손실 200 총포괄손실 400'이다.

② X
당기손실 300이 되려면 20X3년 감소액 400 중 기타포괄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재평가잉여금이 100만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X1년 500 증가 후 20X2년 300 감소를 반영하면 잔액은 200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손실 300 총포괄손실 100'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손실 200 총포괄손실 400'이다.

③ X
총포괄손실 400은 맞지만, 그중 200은 기타포괄손실이고 200만 당기손실이다. 당기손실 300으로 보는 것은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100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이다.
틀린 표현은 '당기손실 300'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손실 200'이다.

④ O
20X3년 재평가감소 400 중 재평가잉여금 잔액 200은 기타포괄손실, 초과 200은 당기손실이므로 당기손실 200, 총포괄손실 400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20X2년 말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100으로 잘못 남겨 두도록 유도하는 선지이다. 20X1년 증가 500에서 20X2년 감소 300을 차감하면 잔액은 반드시 200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평가모형 문제는 매 기말 변동액을 먼저 구한 뒤, 직전까지 남아 있는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확인하고, 그 잔액만큼만 기타포괄손실로 보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재평가감소는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는 기타포괄손실, 초과분은 당기손실이다.

NoteBase

문 2. <보기>는 (주)서울의 연구, 개발과 관련된 자료이다. <보기>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연구비는? (단, 개발비로 분류되는 지출의 경우 개발비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보기>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의 지출 ₩10,000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 ₩10,000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5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연구단계 지출과 개발단계 지출을 구분하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내부 프로젝트 지출의 처리까지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지출은 각 10,000원이다.
- ① 새로운 지식 획득 활동: 연구단계이다.
- ② 여러 대체안의 제안·설계·평가·최종선택 활동: 연구단계이다.
- ③ 시제품·모형의 설계·제작·시험 활동: 개발단계이다.
- ④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의 설계·건설·가동 활동: 개발단계이다.
- 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내부 프로젝트 지출: 전액 연구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연구단계 지출과 단계 구분 불가 지출만이다.

사용할 기준

당기손익 인식 연구비 = 연구단계 지출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내부 프로젝트 지출
이 기준을 쓰는 이유는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고, 개발단계 지출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연구단계인 ①과 ②를 합하면 20,000원이다.
2. ③과 ④는 개발단계 지출이므로 문제의 가정상 자산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에서 제외한다.
3. ⑤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액 연구비로 비용 처리한다.
4. 따라서 당기손익 인식 연구비는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3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20,000원은 ①과 ②만 더하고 ⑤를 누락한 값이다.
- ⑤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로 자산인식하지 않고 연구비로 비용 처리한다.
- 올바르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연구비는 30,000원이다.'이다.

② O
- 연구단계인 ①, ②와 구분 불가 지출인 ⑤를 합하면 30,000원이다.
- ③과 ④는 개발단계 지출이지만, 문제에서 개발비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므로 당기손익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③ X
- 40,000원은 ③ 또는 ④ 중 하나를 연구비로 잘못 포함한 값이다.
- 시제품·모형의 설계·제작·시험과 시험공장 활동은 개발단계 지출이다.
- 올바르게는 '③과 ④를 제외한 30,000원이 당기손익 인식 연구비이다.'이다.

④ X
- 50,000원은 다섯 지출을 모두 비용 처리한 값이다.
- 개발단계인 ③과 ④는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올바르게는 '연구단계와 구분 불가 지출만 비용 처리하므로 30,000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경계를 놓치기 쉽다. 특히 ②의 대체안 제안·설계·평가·최종선택은 연구단계이고, ③의 시제품·모형 시험과 ④의 시험공장 활동은 개발단계라는 점이 자주 뒤바뀐다. 또 ⑤를 개발비로 오해해 누락하면 20,000원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개발비 문제는 먼저 각 활동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분류한 뒤, 개발비는 자산인식 가정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 연구단계 지출과 단계 구분 불가 지출만 비용으로 합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새 지식 탐색·대체안 검토는 연구, 시제품·시험공장은 개발, 단계 구분 불가는 연구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은 20X1년과 20X2년에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1,000,000과 ₩2,000,000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에는 <보기>와 같은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오류가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20X1년	20X2년
감가상각비	₩100,000 과대계상	₩200,000 과대계상
기말선급보험료	₩30,000 과소계상	₩20,000 과소계상
기말미지급임차료	₩10,000 과대계상	₩40,000 과대계상
기말재고자산	₩70,000 과소계상	₩50,000 과소계상

① 20X1년: ₩210,000 과대계상, 20X2년: ₩200,000 과대계상

② 20X1년: ₩210,000 과대계상, 20X2년: ₩200,000 과소계상

③ 20X1년: ₩210,000 과소계상, 20X2년: ₩200,000 과대계상

④ 20X1년: ₩210,000 과소계상, 20X2년: ₩200,000 과소계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누적 오류가 각 연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방향과 금액을 계정별로 연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20X1 보고 당기순이익은 1,000,000원이고 20X2 보고 당기순이익은 2,000,000원이다.
- 감가상각비는 각 연도 비용 자체가 과대계상되었다.
- 선급보험료, 미지급임차료, 기말재고자산은 연도말 잔액의 과대·과소계상이다.

구해야 할 값:
- 각 오류가 20X1년과 20X2년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과대·과소계상시켰는지의 합계이다.

주의할 조건:
- 잔액 계정은 20X2년에 전기말 오류의 반전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8 · 6월

사용할 공식

1. 비용 과대계상은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이고 비용 과소계상은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다.
2. 자산 관련 비용의 당기 영향은 기초 자산 오류 - 기말 자산 오류로 본다.
3. 미지급비용의 당기 영향은 기말 부채 오류 - 기초 부채 오류로 본다.
4. 재고자산으로 인한 매출원가 영향은 기초재고 오류 - 기말재고 오류로 본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 감가상각비는 손익항목이므로 그 해의 당기순이익을 직접 바꾼다.
- 선급보험료, 미지급임차료, 기말재고자산은 연도말 잔액 오류이므로 20X2년에는 전기말 오류가 기초잔액으로 이어지는 반전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

- 감가상각비 100,000원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100,000원 과소계상이다.
- 기말선급보험료 30,000원 과소계상 → 보험료비 30,000원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30,000원 과소계상이다.
- 기말미지급임차료 10,000원 과대계상 → 임차료비 10,000원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10,000원 과소계상이다.
- 기말재고자산 70,000원 과소계상 → 매출원가 70,000원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70,000원 과소계상이다.
- 합계는 210,000원 과소계상이다.

2. 20X2년

- 감가상각비 200,000원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200,000원 과소계상이다.
- 선급보험료 오류 영향은 $(-30,000)-(-20,000)=-10,000$이므로 보험료비 10,000원 과소계상 → 당기순이익 10,000원 과대계상이다.
- 미지급임차료 오류 영향은 $40,000-10,000=30,000$이므로 임차료비 30,000원 과대계상 → 당기순이익 30,000원 과소계상이다.
- 재고자산 오류 영향은 $(-70,000)-(-50,000)=-20,000$이므로 매출원가 20,000원 과소계상 → 당기순이익 20,000원 과대계상이다.
- 합계는 200,000원 과소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0X1년은 210,000원 과소계상이므로 '과대계상'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20X1년 210,000원 과소계상'이다.
- 20X2년도 200,000원 과소계상이므로 '과대계상'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20X2년 200,000원 과소계상'이다.

② X
- 20X1년은 210,000원 과소계상이므로 '과대계상'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20X1년 210,000원 과소계상'이다.
- 20X2년 200,000원 과소계상은 맞다.

③ X
- 20X1년 210,000원 과소계상은 맞다.
- 20X2년은 200,000원 과소계상이므로 '과대계상'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20X2년 200,000원 과소계상'이다.

④ O
- 20X1년 210,000원 과소계상, 20X2년 200,000원 과소계상이 모두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20X2년에서 선급보험료와 재고자산은 전기말 오류가 반전되어 당기순이익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미지급임차료는 부채 과대계상이 커져 20X2년 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방향이다. 잔액 계정을 20X1년 방식대로 그대로 더하면 20X2년 부호를 쉽게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액 계정 오류 문제는 먼저 자산인지 부채인지 구분하고, 다음에 20X2년 영향은 기초오류와 기말오류의 차이로 계산한다. 그 뒤 비용 과대면 순이익 과소, 비용 과소면 순이익 과대라는 방향만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비용 과대는 순이익 과소이다. 자산 오류는 기초-기말, 부채 오류는 기말-기초, 재고 오류는 기초재고-기말재고로 당기손익을 잡는다.

NoteBase

문 4. (주)서울의 현재 당좌비율은 100%이고 매출채권회전율은 10회이다. <보기>의 거래를 모두 반영할 경우 당좌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의 변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재고자산 ₩2,000,000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 매출채권 ₩4,000,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① 당좌비율: 증가, 매출채권회전율: 증가
② 당좌비율: 증가, 매출채권회전율: 감소
③ 당좌비율: 감소, 매출채권회전율: 증가
④ 당좌비율: 감소, 매출채권회전율: 감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좌비율의 분자에 들어가는 당좌자산의 변동과 매출채권회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의 변동 방향을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현재 당좌비율 100%, 매출채권회전율 10회이다.
거래는 이자비용 현금 지급 1,000,000원, 재고자산 현금 구입 2,000,000원, 매출채권 현금 회수 4,000,000원이다.
주의할 조건은 당좌비율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지 않고, 매출채권의 현금 회수는 당좌자산 내부의 대체라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유동부채) × 100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평균매출채권)으로 본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각 거래가 당좌자산, 유동부채, 매출채권 중 어느 항목을 바꾸는지만 확인하면 비율의 증감 방향을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좌비율이 100%이므로 처음에는 당좌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상태이다.
2. 이자비용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당좌자산이 1,000,000원 감소하고 유동부채는 변하지 않으므로 당좌비율은 하락한다.
3. 재고자산 2,00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당좌자산인 현금이 2,000,000원 감소하고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좌비율은 추가로 하락한다.
4. 매출채권 4,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당좌자산 내부에서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이라 당좌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으므로 당좌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5. 따라서 당좌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6. 매출채권회전율은 이 거래들로 매출액이 늘지 않고 매출채권만 회수되어 분모가 작아지는 방향이므로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매출채권회전율이 증가하는 방향 판단은 맞지만, 당좌비율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이자비용 현금 지급과 재고자산의 현금 구입 때문에 당좌자산이 줄어드므로 올바르게는 당좌비율 감소, 매출채권회전율 증가이다.
② X: 당좌비율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틀리고, 매출채권회전율이 감소한다는 표현도 틀리다. 올바르게는 당좌비율 감소, 매출채권회전율 증가이다.
③ O: 이자비용 현금 지급과 재고자산 현금 구입으로 당좌자산이 줄어 당좌비율은 감소하고, 매출채권 회수로 매출채권 잔액이 줄어 매출채권회전율은 증가한다.
④ X: 당좌비율이 감소한다는 표현은 맞지만, 매출채권회전율이 감소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분모가 줄어 회전율은 올바르게는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현금 회수가 들어가면 당좌비율도 올라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매출채권과 현금은 모두 당좌자산이므로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또 재고자산을 현금으로 사는 거래를 유동자산 내부 대체로만 보고 당좌비율 변화가 없다고 보면 틀린다.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에서 제외되므로 분자가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율 문제는 먼저 분자와 분모에 어떤 계정이 들어가는지 확정한 다음, 각 거래가 그 계정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따로 표시하면 된다. 현금과 매출채권처럼 같은 분자 안에서만 이동하는 거래는 총액 변동이 없고, 재고자산처럼 비율의 분자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바뀌면 분자가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당좌비율은 재고를 빼고 보고,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줄면 올라간다.

NoteBase

문 5. (주)서울은 액면금액이 ₩100,000, 표시이자율이 연 10%(1년에 1회 이자지급)인 사채를 이자지급일에 현금 ₩113,000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하였다. 이때 사채상환손실이 ₩8,000이었다면, 상환시점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① ₩8,000

② ₩5,000

③ ₩3,000

④ ₩2,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지급일 조기상환에서 이자지급액과 사채 상환가액을 분리한 뒤 상환손실로 장부금액을 역산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원이다.
표시이자율은 연 10%이고 1년에 1회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에 현금 113,000원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하였다.
상환손실은 8,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상환시점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이다.

사용할 공식

이자지급일 총지급액은 이자와 원금상환대가로 나뉜다.
당기 이자지급액=100,000×10\%=10,000
상환가액=113,000-10,000=103,000
상환손실=상환가액-사채장부금액
사채장부금액=액면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자지급일의 113,000원 전부가 사채 원금 상환대가가 아니고, 먼저 당기이자 10,000원을 떼어 낸 뒤 남은 금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야 상환손실 8,000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 이자지급액은 100,000원에 10%를 곱한 10,000원이다.
2. 따라서 사채의 실제 상환가액은 총지급액 113,000원에서 이자 10,000원을 뺀 103,000원이다.
3. 상환손실 8,000원은 상환가액이 장부금액보다 8,000원 크다는 뜻이므로 사채장부금액은 103,000원에서 8,000원을 뺀 95,000원이다.
4. 사채장부금액은 액면금액 100,000원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뺀 값이므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100,000원에서 95,000원을 뺀 5,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8,000원이라면 사채장부금액은 92,000원이다. 그러면 상환손실은 103,000원-92,000원=11,000원이 되어 문제의 8,000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할인발행차금을 8,000원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장부금액 95,000원에 대응하는 5,000원이다.
2번 O: 이자 10,000원을 먼저 분리하면 상환가액은 103,000원이다. 상환손실 8,000원을 반영한 장부금액은 95,000원이고, 액면금액 100,000원과의 차이 5,000원이 상환시점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이다.
3번 X: 3,000원이라면 사채장부금액은 97,000원이다. 그러면 상환손실은 103,000원-97,000원=6,000원에 그쳐 문제 조건과 어긋난다. 틀린 표현은 상환가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만 보고 할인발행차금을 판단하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상환손실을 반영해 5,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4번 X: 2,000원이라면 사채장부금액은 98,000원이다. 그러면 상환손실은 103,000원-98,000원=5,000원에 불과하다. 틀린 표현은 장부금액 역산을 끝까지 하지 않은 점이며, 올바르게는 장부금액이 95,000원이므로 할인발행차금은 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총지급액 113,000원을 전부 상환가액으로 보는 순간 계산이 틀어진다. 이자지급일 상환에서는 당기이자 10,000원을 먼저 분리해야 하며, 그다음 상환손실 8,000원으로 장부금액을 역산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 조기상환 문제는 이자지급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총지급액에서 당기이자를 분리한 뒤, 상환손익으로 장부금액을 역산하고, 마지막에 액면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할인 또는 할증을 구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자지급일 사채상환은 총지급액을 바로 쓰지 않고 이자 분리 후 상환손익으로 장부금액을 먼저 구하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6. (주)서울은 <보기>의 3가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서울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20X2년 (주)서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손익은?

<보기>

구분	취득원가	20X1년 말 공정가치	20X2년 말 공정가치
자산1	₩300	₩390	₩370
자산2	₩350	₩290	₩275
자산3	₩310	₩385	₩390

① ₩105 이익

② ₩80 이익

③ ₩35 손실

④ ₩30 손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공정가치 변동액의 순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자산1: 20X1년 말 ₩390, 20X2년 말 ₩370
- 자산2: 20X1년 말 ₩290, 20X2년 말 ₩275
- 자산3: 20X1년 말 ₩385, 20X2년 말 ₩390

구해야 할 값:
-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될 손익

주의할 조건:
- 공정가치모형은 취득원가가 아니라 전기말 공정가치 대비 당기말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용할 공식

당기손익 = (당기말 공정가치 - 전기말 공정가치)의 합계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보유 중인 자산의 당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바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산1의 20X2년 변동액은 370 − 390 = −20이다.
2. 자산2의 20X2년 변동액은 275 − 290 = −15이다.
3. 자산3의 20X2년 변동액은 390 − 385 = 5이다.
4. 합계는 −20 − 15 + 5 = −30이므로 20X2년 손익은 ₩30 손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05 이익은 취득원가 대비 20X1년 말 공정가치 변동액의 합계 (390 − 300) + (290 − 350) + (385 − 310) = 105이다. 문제는 20X2년 손익을 묻고 있으므로 기준 기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전기말 공정가치와 당기말 공정가치의 차이를 합산해야 한다.
② X: 계산 결과가 ₩80 이익이 되지 않는다. 세 자산의 20X2년 변동액을 모두 반영하면 −20 − 15 + 5 = −30이다. 올바르게는 취득원가와 당기말 공정가치를 섞지 않고 당기 변동액 전체를 합산해야 한다.
③ X: ₩35 손실은 자산1과 자산2의 하락분 20 + 15만 더하고 자산3의 상승분 ₩5를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상승분과 하락분을 함께 반영한 순액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④ O: 자산별 20X2년 공정가치 변동액의 합계가 −30이므로 ₩30 손실이 맞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취득원가를 계속 붙잡고 계산하게 만드는 점에 있다. ①은 전기까지 누적된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③은 하락분만 보고 상승분을 누락하게 만든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당기말과 전기말의 차이만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문제는 취득원가를 잠시 배제하고 자산별로 당기말 공정가치-전기말 공정가치를 계산한 뒤 그 순액을 합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의 당기손익은 취득원가 기준이 아니라 전기말 대비 당기말 공정가치 변동액의 순액이다.

NoteBase

문 7.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③ 중립적 서술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보강적 질적 특성 중 적시성, 검증가능성, 중립성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적시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제때 제공되는 성질이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성질이다.
중립성은 정보가 특정 방향의 결론을 유도하려는 편향 없이 선택되고 제시되는 성질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으로서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적시성은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성질이므로 옳다.
② O.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은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일회적 절차가 아니라 반복적 판단 과정이며, 한 특성을 높이려다 다른 특성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중립적 서술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중립성이 아니라 검증가능성의 정의이다. 올바르게는 중립성은 정보가 편향 없이 선택·제시되는 성질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④ O.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을 대체하지 못하므로,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독립적인 관찰자들의 의견 일치'라는 검증가능성의 핵심 문구를 제시해 놓고 용어만 중립성으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편향 없음은 중립성, 관찰자 합의 가능성은 검증가능성이라는 축이 섞이면 오답에 걸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강적 질적 특성 문제에서는 먼저 키워드를 대응시켜 판단한다. 제때 제공되면 적시성, 독립적 관찰자의 합의 가능성이면 검증가능성, 편향이 없으면 중립성으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적시성은 제때, 검증가능성은 관찰자 합의, 중립성은 편향 없음이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은 20X1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120,000에 취득(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 연수합계법 상각) 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산관련보조금 ₩40,000을 수령하였다. (주)서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없으며,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① ₩68,000

② ₩88,000

③ ₩92,000

④ ₩1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산관련보조금을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대상액과 연수합계법의 반기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20,000원, 자산관련보조금 40,000원, 잔존가치 20,000원, 내용연수 4년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말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보조금은 기계장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월할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차감 후 장부금액 = 취득원가 - 보조금
감가상각대상액 = 차감 후 장부금액 - 잔존가치
당기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대상액 $\times \frac{4}{1+2+3+4} \times \frac{6}{12}$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 표시하면 감가상각의 출발점이 순장부금액으로 바뀌고, 취득일이 7월 1일이므로 첫해는 6개월치만 상각한다.

계산 과정

1. 보조금 차감 후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120,000원 - 40,000원 = 80,000원이다.
2. 감가상각대상액은 80,000원 - 20,000원 = 60,000원이다.
3. 20X1년 감가상각비는 60,000원 $\times \frac{4}{10} \times \frac{6}{12}$ = 12,000원이다.
4. 따라서 20X1년 말 장부금액은 80,000원 - 12,000원 = 68,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기계장치의 20X1년 말 장부금액은 68,000원이다.
② X: 기말 장부금액을 88,000원으로 본 점이 틀리다. 보조금 차감 후 최초 장부금액이 이미 80,000원이므로 88,000원은 성립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80,000원에서 반기 감가상각비 12,000원을 차감한 68,000원이다.
③ X: 기말 장부금액을 92,000원으로 본 점이 틀리다. 92,000원도 보조금 차감 후 장부금액 80,000원보다 큰 값이어서 차감 표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68,000원이다.
④ X: 기말 장부금액을 100,000원으로 본 점이 틀리다. 이 값은 취득원가 120,000원에서 보조금 차감을 반영하지 않거나 감가상각만 일부 반영한 판단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보조금 차감과 반기 감가상각을 모두 반영한 68,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표시방법이면 감가상각의 출발점이 120,000원이 아니라 80,000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또한 연수합계법의 첫해 상각률 $\frac{4}{10}$에 월할 $\frac{6}{12}$를 한 번 더 곱해야 한다는 점도 자주 빠뜨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산관련보조금 문제는 먼저 보조금의 표시방법을 확인하고, 차감 표시이면 취득원가에서 보조금을 먼저 뺀다. 그다음 잔존가치를 제외한 감가상각대상액을 구하고, 해당 감가상각방법의 연간 상각률과 월할 기간을 차례로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차감 표시 보조금은 자산원가에서 먼저 빼고, 감가상각은 차감 후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9. 수익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품을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운송선박에 선적하였다.

② 상품을 거래처에 위탁하여 판매하였다.

③ 이자부 채권을 매입하고 3개월이 지났으나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다.

④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으로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익이 언제 인식되는지, 특히 수행의무 이행 시점과 현금 수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도착지 인도기준 매출은 상품이 약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판매자의 이행이 끝나지 않으므로 선적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위탁판매는 수탁자를 통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현금 수취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원금 사용에 따라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용역수익은 용역 제공으로 수행의무가 이행되면 현금 대신 상계로 결제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도착지 인도기준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판매자의 이행이 완료된다. 운송선박에 선적한 것만으로는 아직 고객에게 통제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시점에는 수익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다.
2번 X: '위탁하여 판매하였다'는 수탁자를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한다. 단순히 상품을 맡긴 것과 달리 판매가 성립한 시점에는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한다. 틀린 표현은 위탁 자체를 수익 미인식으로 보는 해석이고, 올바르게는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수익을 인식한다.
3번 X: 이자부 채권은 현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익이 아니다'라는 취지이고, 올바르게는 3개월 경과분 이자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4번 X: 용역을 제공했다면 수행의무가 이행되어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매입채무와 상계한 것은 결제 방법의 문제일 뿐 수익 인식을 부정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상계이므로 수익이 아니라는 해석이고, 올바르게는 상계로 결제해도 용역수익을 인식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현금 수취 여부와 수익 인식 여부를 일부러 섞어 놓았다. 또 1번의 '선적하였다'와 2번의 '위탁하여 판매하였다'를 비슷하게 읽으면 둘 다 아직 미실현처럼 보이지만, 1번은 도착 전이고 2번은 판매 완료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 문제는 먼저 수행의무가 끝났는지, 통제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수익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현금 수취, 외상, 상계는 결제 방식일 뿐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착지 인도는 도착 시점, 위탁판매는 실제 판매 시점, 이자는 기간 경과 시점, 용역은 제공 완료 시점에 수익을 본다.

NoteBase

문 10.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10,000,000에 취득(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하여 사용하고 있다. 20X4년 12월 31일 동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0과 ₩3,600,000이었다. 반면 20X5년 12월 31일에는 동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4,800,000과 ₩5,500,000으로 회복되어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 (주)서울이 20X5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① ₩1,800,000

② ₩2,000,000

③ ₩2,300,000

④ ₩2,50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상차손환입액을 계산할 때 회수가능액과 손상 인식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상한을 함께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000,000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이다.
20X4년 말 순공정가치 3,000,000원, 사용가치 3,600,000원이므로 회수가능액은 3,600,000원이다.
20X5년 말 순공정가치 4,800,000원, 사용가치 5,500,000원이므로 회수가능액은 5,5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5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이다.
주의할 조건: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할 공식

손상차손환입액 = 환입 후 허용 장부금액 - 환입 직전 장부금액이다.
여기서 환입 후 허용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과 손상 미인식 가정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전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손상이 없었다면 기록되었을 장부금액까지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건물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0원 ÷ 10년 = 1,000,000원이다.
2. 20X4년 말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은 10,000,000원 - 1,000,000원 × 4년 = 6,000,000원이다.
3. 20X4년 말 회수가능액은 3,600,000원이므로 손상차손 2,400,000원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은 3,600,000원이 된다.
4. 20X5년에는 남은 내용연수 6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므로 감가상각비는 3,600,000원 ÷ 6년 = 600,000원이다.
5. 따라서 20X5년 말 환입 직전 장부금액은 3,600,000원 - 600,000원 = 3,000,000원이다.
6.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20X5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0원 - 1,000,000원 × 5년 = 5,000,000원이다.
7.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은 5,500,000원이지만 환입 상한은 5,000,000원이므로 환입 후 허용 장부금액은 5,000,000원이다.
8. 손상차손환입액은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800,000원은 환입 상한 5,000,000원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환입 직전 장부금액 3,000,000원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 나오는 수치이다. 틀린 표현은 환입 직전 장부금액을 3,200,000원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20X5년 감가상각비 600,000원을 차감한 뒤 장부금액이 3,000,000원이 된다.
② O: 20X5년 말 회수가능액은 5,500,000원이지만 손상 미인식 가정 장부금액 5,000,000원이 상한이다. 따라서 환입 직전 장부금액 3,000,000원에서 2,000,000원을 환입하는 것이 맞다.
③ X: 2,300,000원은 20X4년 손상 후 장부금액 3,600,000원에서의 후속 감가상각이나 환입 상한 중 하나를 잘못 반영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회복된 회수가능액을 그대로 환입액으로 연결하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당기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환입 상한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④ X: 2,500,000원은 회수가능액 5,500,000원과 환입 직전 장부금액 3,000,000원의 차이만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환입 상한을 무시하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20X5년 말 장부금액이 5,000,000원이므로 환입액은 2,000,000원까지만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20X5년 말 회수가능액 5,500,000원만 보고 2,500,000원을 고르는 데 있다.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 회복액이 아니라 손상 미인식 가정 장부금액이라는 상한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차손환입 문제는 먼저 손상 인식 시점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으로 손상 후 장부금액을 구하고, 다음에 그 금액으로 후속 감가상각을 반영한 뒤, 마지막으로 손상 미인식 가정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환입 한도를 확정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만 보지 않고 손상 없었을 장부금액 상한까지 함께 본다.

NoteBase

문 11. 「지방회계법 시행령」상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은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이다.

②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은 그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이다.

③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이다.

④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을 어떤 기준시점으로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회계연도 소속은 특정 수입이나 지출을 어느 연도의 세입·세출로 귀속시키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수시수입은 정기적으로 확정되는 수입이 아니라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발생하는 수입이다.

핵심 구분

세입은 수입 유형에 따라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발급일, 영수일 등 기준시점이 달라진다. 세출도 성질에 따라 지급사실 발생일, 지급청구 접수일, 지급확정일 등 기준시점이 달라진다. 이 문제의 핵심 구분은 수시수입의 기준을 납부기한으로 볼 것인지, 납입고지서 발급일로 볼 것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본다. 따라서 회계연도 소속 기준을 납부기한에 둔다는 설명은 옳다.
2번: X.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본다. 틀린 표현은 '그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이다. 올바르게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3번: O.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등은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로 본다. 따라서 지급의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4번: O. 사용료·보관료·전기료 등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로 본다. 따라서 지급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잡은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수입과 지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면 틀리기 쉽다. 특히 2번처럼 수시수입을 납부기한 기준으로 오인하면 정기수입과 수시수입의 구별이 무너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입인지 세출인지를 나눈다. 그다음 수입·지출의 성질을 확인하고, 해당 유형의 기준시점이 납부기한인지, 납입고지서 발급일인지, 지급사실 발생일인지, 지급청구 접수일인지 대응시키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기수입은 납부기한, 고지형 수시수입은 고지서 발급일, 실비보상류는 지급사실 발생일, 사용료류는 지급청구 접수일이 기준이다.

NoteBase

문 12. (주)서울은 사과를 가공해서 사과주스원액과 사과비누원액을 생산한 후, 추가가공을 거쳐 사과주스와 사과비누를 생산하고 있다. 20X1년 1월 사과 1,000 kg을 투입(분리점까지 발생원가: ₩3,000,000)하여 사과주스원액 500 L와 사과비누원액 500 L가 생산되었다. 사과주스원액 500 L는 추가원가 ₩500,000으로 사과주스 2,000개가 생산되었으며, 사과비누원액 500 L는 추가원가 ₩700,000으로 사과비누 2,000개가 생산되었다. 제품별 판매가격은 <보기>와 같다.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되었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sales value at split-off method)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은?

<보기>
- 제품별 판매가격 -
사과주스원액: L당 ₩1,000 비누원액: L당 ₩2,000
사과주스: 개당 ₩2,000 비누: 개당 ₩3,000

① ₩1,200,000
② ₩1,500,000
③ ₩2,000,000
④ ₩2,5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리점 판매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 뒤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결합원가 3,000,000원, 사과주스원액 500 L, 비누원액 500 L, 사과주스 추가가공원가 500,000원, 비누 추가가공원가 700,000원이다.
분리점 판매가격: 사과주스원액은 L당 1,000원, 비누원액은 L당 2,000원이다.
최종제품 판매가격: 사과주스는 개당 2,000원, 비누는 개당 3,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결합원가는 분리점 판매가치 기준으로 배분하고, 매출총이익은 최종매출액에서 배분 결합원가와 추가가공원가를 모두 차감해 구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18 · 6월

사용할 공식

1. 분리점 판매가치 비율 = 각 제품의 분리점 판매가치 / 전체 분리점 판매가치이다.
2. 사과주스 배분 결합원가 = 결합원가 × 사과주스원액의 분리점 판매가치 비율이다.
3. 매출총이익 = 최종제품 매출액 - 배분 결합원가 - 추가가공원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분리점 판매가치를 구한다. 사과주스원액은 500 L × 1,000원 = 500,000원이고, 비누원액은 500 L × 2,000원 = 1,000,000원이다. 전체 분리점 판매가치는 1,500,000원이다.
2. 사과주스원액의 결합원가 배분비율은 $500,000/1,500,000 = 1/3$이다. 따라서 사과주스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3,000,000 \times 1/3 = 1,000,000$원이다.
3. 사과주스의 최종 매출액은 2,000개 × 2,000원 = 4,000,000원이다.
4. 사과주스의 총원가는 배분 결합원가 1,000,000원과 추가가공원가 500,000원을 합한 1,500,000원이다.
5. 따라서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은 $4,000,000 - 1,500,000 = 2,5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200,000원은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이 아니다. 분리점 판매가치법을 적용하면 사과주스의 배분 결합원가는 1,000,000원이고, 여기에 추가가공원가 500,000원을 더한 총원가는 1,500,000원이다.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은 최종매출액 4,000,000원에서 총원가 1,5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1,200,000원이 아니라 2,500,000원이다.

② X

1,500,000원은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사과주스의 총원가이다. 배분 결합원가 1,000,000원과 추가가공원가 500,000원을 합하면 1,500,000원이 되며, 매출총이익은 이 총원가를 최종매출액에서 차감해 구한다. 따라서 1,500,000원이 아니라 2,500,000원이다.

③ X

2,000,000원도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분리점 판매가치법에 따른 결합원가 배분과 추가가공원가를 모두 반영하면 사과주스의 총원가는 1,500,000원이고, 최종매출액은 4,000,000원이므로 매출총이익은 2,000,000원이 아니라 2,500,000원이다.

④ O

사과주스의 분리점 판매가치는 500,000원으로 전체 1,500,000원의 1/3이므로 결합원가 3,000,000원 중 1,000,000원이 배분된다. 여기에 추가가공원가 500,000원을 더하면 총원가가 1,500,000원이고, 최종매출액 4,0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은 2,500,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분리점 판매가치법은 분리점 시점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나누는 방법인데, 최종제품 판매가치로 배분하거나 총원가 자체를 매출총이익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②처럼 총원가 1,500,000원을 바로 답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리점 판매가치법이 보이면 먼저 분리점 기준 판매가치를 계산해 결합원가를 안분한다. 그다음 해당 제품의 추가가공원가를 더해 총원가를 만든 뒤, 최종매출액에서 총원가를 차감해 매출총이익을 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분리점 판매가치법은 분리점 가격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매출총이익은 최종매출액에서 배분 결합원가와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한 값이다.

NoteBase

문 13. 종업원급여에 대한 내용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②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한다.

③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생기며,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 즉 급여가 가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

④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위험 부담 주체, 동일 지배하 위험공유제도와 복수사용자제도의 구별,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재측정요소의 후속 회계처리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정해진 기여금만 납부하고 이후 급여 부족 위험과 운용성과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는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복수사용자제도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제도이며, 동일 지배 아래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 대체는 가능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약정한 기여금만 부담하고, 예상급여액 부족 위험과 투자 성과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한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 있는 기업들의 위험공유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로 보지 않으며, 복수사용자제도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3번: O.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마다 기업의 채무가 발생한다.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응하는 의무는 가득 여부와 무관하게 누적된다.
4번: X. 틀린 부분은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와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급여위험을 부담하는지이다. 또한 기타포괄손익 항목이라고 해서 모두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급여의 재측정요소는 재순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4번이 자주 함정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퇴직급여 문항은 먼저 급여 부족 위험과 투자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제도가 동일 지배 위험공유인지 여러 사용자의 공동제도인지 구분한 뒤, 재측정요소는 OCI 인식 후 재순환 금지라는 기준을 대입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확정기여는 회사가 기여금만 부담하고, 확정급여는 회사가 급여위험을 부담하며, 재측정요소는 OCI 인식 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보기>는 (주)서울의 기초 및 기말의 자산, 부채 현황이다. (주)서울은 당기 중에 ₩1,000,00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500,000의 현금배당과 10%의 주식배당을 완료하였다. (주)서울의 당기순이익은? (단, 당기 중 해당 내용 외의 자본거래는 없었으며, 기타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기>

	기초	기말
자산	₩35,000,000	₩39,000,000
부채	₩20,000,000	₩22,000,000

① ₩1,500,000

② ₩3,000,000

③ ₩4,000,000

④ ₩5,0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초·기말 자본의 변동과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당기순이익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자산 35,000,000원, 기초부채 20,000,000원
- 기말자산 39,000,000원, 기말부채 22,000,000원
- 유상증자 1,000,000원
- 현금배당 500,000원
- 주식배당 10%

구해야 할 값:
- 당기순이익

주의할 조건:
- 기타 자본거래는 없고 기타포괄손익도 없다.
- 주식배당은 자본 내 대체이므로 총자본을 줄이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소유주투자 + 당기순이익 - 소유주에 대한 분배
이 문제에서는 유상증자가 소유주투자, 현금배당이 소유주에 대한 분배에 해당한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등으로 대체하는 거래이므로 총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산 과정

1. 기초자본은 35,000,000 - 20,000,000 = 15,000,000원이다.
2. 기말자본은 39,000,000 - 22,000,000 = 17,000,000원이다.
3. 17,000,000 = 15,000,000 + 1,000,000 + 당기순이익 - 500,000
4. 당기순이익 = 17,000,000 - 15,000,000 - 1,000,000 + 500,000 = 1,500,000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5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당기순이익은 1,500,000원이므로 옳다.

② X
'당기순이익이 3,000,000원이다'라는 판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은 1,500,000원이다.
순자산 증가액 2,000,000원에 유상증자 1,000,000원만 더하고 현금배당 500,000원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이런 값이 나온다.

③ X
'당기순이익이 4,000,000원이다'라는 판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은 1,500,000원이다.
자산 증가액 4,000,000원을 그대로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부채 증가액 2,000,000원과 자본거래가 빠져 오답이 된다.

④ X
'당기순이익이 5,000,000원이다'라는 판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은 1,500,000원이다.
자산 증가액 4,000,000원에 유상증자 1,000,000원까지 손익처럼 섞어 계산하면 총자본 변동 구조를 잘못 읽은 값이 된다.

오답 포인트

주식배당을 현금배당처럼 총자본 감소로 보는 실수가 대표적 함정이다. 이 문항은 순자산 변동에서 유상증자와 현금배당만 조정하고, 주식배당은 총자본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기순이익 역산 문제는 자산과 부채로 기초·기말 자본을 먼저 구한 뒤, 소유주투자와 현금배당 같은 자본거래만 따로 조정하여 손익을 분리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이익 역산은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증자 + 현금배당으로 정리하고, 주식배당은 총자본 불변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5. <보기 1>과 <보기 2>는 (주)서울의 해외 종속회사인 S사의 20X1년 수정후시산표 및 20X1년 $1당 원화자료이다. 기능통화인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는 수정후시산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S사의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이익은? (단, S사는 20X1년 초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자본거래는 없었다.)

<보기 1>

<20X1년 S사 수정후시산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400	부채	$170
비용	$70	자본금	$200
		수익	$100
합계	$470	합계	$470

<보기 2>

<20X1년 $1당 원화자료>

구분	환율
20X1년 초 환율	₩800
20X1년 평균환율	₩900
20X1년 말 마감환율	₩1,000

(단, 환산 시 수익·비용항목은 평균환율을, 자본항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① ₩27,000

② ₩30,000

③ ₩50,000

④ ₩70,000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 종속회사의 수정후시산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당기순이익과 해외사업환산손익을 함께 반영한 총포괄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자산 400달러, 부채 170달러, 자본금 200달러, 수익 100달러, 비용 70달러이다.
구해야 할 값은 원화 기준 총포괄이익이다.
주의할 조건은 수익·비용은 평균환율 900원, 자본항목은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며, S사는 20X1년 초 설립되어 자본금 200달러 전체에 초환율 800원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총포괄이익은 기말 순자산 환산액에서 역사적 환율로 환산한 자본금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총포괄이익 = (자산 - 부채) × 기말환율 - 자본금 × 거래일환율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자본거래가 없으므로 기말 순자산의 증가분 전체가 당기의 총포괄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당기순이익을 환산하면 수익 100달러 × 900원 - 비용 70달러 × 900원 = 27,000원이다.
2. 기말 순자산을 환산하면 (400 − 170)달러 × 1,000원 = 230,000원이다.
3. 자본금은 설립 시점 환율을 적용하므로 200달러 × 800원 = 160,000원이다.
4. 따라서 총포괄이익은 230,000원 - 160,000원 = 70,000원이다.
5. 같은 결과를 당기순이익 27,000원 + 해외사업환산손익 43,000원으로 보아도 7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27,000원은 수익과 비용을 평균환율로 환산한 당기순이익만 계산한 값이다. 총포괄이익에는 해외사업환산손익이 추가되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총포괄이익이 당기순이익과 같다'는 전제이고, 올바르게는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 27,000원에 환산손익 43,000원을 더한 70,000원'이다.
2번 X. 30,000원은 자본금 200달러에 기말환율 1,000원을 잘못 적용하여 230,000원 - 200,000원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자본금은 자본항목이므로 거래일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틀린 표현은 '자본금을 기말환율로 환산한다'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자본금은 설립 시점 환율 800원으로 환산한다'이다.
3번 X. 50,000원은 자본금 200달러에 평균환율 900원을 잘못 적용하여 230,000원 - 180,000원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평균환율은 수익·비용항목에 적용한다. 틀린 표현은 '자본금에 평균환율을 적용한다'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 수익·비용은 평균환율을 적용한다'이다.
4번 O. 기말 순자산 230달러를 기말환율 1,000원으로 환산하면 230,000원이고, 역사적 환율로 환산한 자본금 160,000원을 차감하면 총포괄이익은 70,000원이다. 총포괄이익에는 당기순이익과 해외사업환산손익이 모두 포함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을 같은 것으로 보거나, 자본금에도 평균환율·기말환율을 적용하는 데 있다. 수익·비용은 평균환율, 자산·부채는 기말환율,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이라는 구분이 흐려지면 27,000원·30,000원·50,000원 같은 오답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사업 환산 문제는 먼저 항목을 자산·부채, 수익·비용, 자본으로 나눈 뒤 각 환율을 대응시켜 본다. 그 다음 자본거래 유무를 확인하고, 자본거래가 없으면 기말 순자산 환산액에서 역사적 자본금을 차감하여 총포괄이익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부는 기말, 손익은 평균,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이며, 자본거래가 없으면 기말 순자산 증가분이 총포괄이익이다.

NoteBase

문 16. 리스에 관한 내용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로 본다.

②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소리스료(선지급액 포함)는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각각에 배분한다.

③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④ 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할 때의 요소별 분류 원칙, 최소리스료 배분,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예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면 원칙적으로 토지요소와 건물요소를 따로 분류하고, 최소리스료도 각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나눈다.
토지분 최초 인식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분류할 수 있고, 이때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본다.
리스이용자의 토지·건물 임차권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토지분 최초 인식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본다.

② O
최소리스료와 선지급액은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문장은 토지요소와 건물요소를 분리하는 기본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③ O
최소리스료를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금융리스로 본다.
예외는 토지와 건물 모두가 운용리스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뿐인데, 선지는 그 예외까지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다.
리스이용자의 토지·건물 임차권이 투자부동산에 해당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없고, 투자부동산으로 보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토지·건물 리스는 보통 분리 회계가 원칙이므로 ④도 맞아 보이기 쉽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는 분리 측정 예외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면 오답이 된다. 발문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는 점도 함께 놓치기 쉬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지·건물 일괄리스 문제는 먼저 "원칙은 분리, 예외는 일괄 처리" 구조를 잡는다. 그다음 ① 토지분 중요성 예외, ② 상대적 공정가치 배분, ③ 배분 불가 시 금융리스, ④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이면 분리 측정 불필요 순서로 대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토지·건물 리스는 원칙적으로 나누고,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이면 나누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보기>는 (주)서울의 20X1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내용이다. (주)서울의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며, 당기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10%이다.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단, 향후 세율은 일정하며, 과세소득은 20X1년과 동일하고 전기 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

<보기>

• 20X1년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100,000이다.

• 20X1년 7월 1일 ₩50,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X1년 8월 31일 ₩100,000에 처분하였다.

• 20X1년 ₩1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X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150,000이며 (주)서울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105,000

② ₩110,000

③ ₩115,000

④ ₩12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법인세비용만 가려 내는 문제이다. 영구적 차이,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원, 세율 10%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법인세비용이다.
주의할 조건: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로 본다. 자기주식 처분 관련 세효과는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토지 재평가 관련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당기손익에 대응되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공식은 법인세비용 = 당기손익 관련 과세소득 × 세율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의 세 항목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에 들어가는 것과 자본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따로 가는 것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원에서 접대비 한도초과액 100,000원을 더해 당기손익 관련 과세소득을 1,100,000원으로 본다.
2. 자기주식 처분차익 관련 세효과는 자본에 직접 반영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계산에서 제외한다.
3. 토지 재평가차익 50,000원에 대한 이연법인세 5,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므로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1,100,000 \times 10\% = 11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105,000원은 접대비 한도초과액 100,000원을 일시적 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 10,000원을 차감하고, 토지 재평가 관련 세효과 5,000원만 더한 식에서 나오는 오산이다. 이 문제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2번: O. 당기손익에 반영할 세무조정은 접대비 한도초과액 100,000원뿐이므로 과세소득은 1,100,000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한 법인세비용은 110,000원이다.
3번: X. 115,000원은 110,000원에 토지 재평가차익 50,000원에 대한 이연법인세 5,000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재평가차익 관련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에 더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재평가 관련 세효과를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에 포함시키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기타포괄손익에 별도로 반영한다.
4번: X. 120,000원은 110,000원에 토지 재평가 관련 세효과 5,000원과 자기주식 처분 관련 세효과 5,000원을 모두 더한 식에서 나오는 오산이다. 자기주식 처분 관련 세효과는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재평가 관련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므로 둘 다 당기손익 법인세비용에 넣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세무조정 항목을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합산하는 데 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당기손익의 과세소득만 늘리고, 자기주식 처분은 자본으로, 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간다는 기간내 배분을 놓치면 3번이나 4번으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 문제는 먼저 각 항목이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자본 중 어디에 인식되는지부터 나눈다. 그다음 당기손익에 남는 세무조정만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세율을 곱하면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영구적 차이는 당기세액만 바꾸고, 자본·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세효과는 같은 자리로 따라간다.

NoteBase

문 18. (주)서울의 2018년 매출이 ₩18,000,000이고, 총비용은 ₩15,000,000이다. 총비용 중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은 2:3이다. (주)서울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은?

① ₩6,000,000

② ₩9,000,000

③ ₩12,000,000

④ ₩15,0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 뒤 공헌이익률을 이용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매출액 18,000,000원, 총비용 15,000,000원, 고정비:변동비 = 2:3이다.
- 구해야 할 값: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
- 주의할 조건: 총비용 15,000,000원을 비율 2:3으로 나누어 고정비와 변동비를 먼저 구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비공헌이익률
공헌이익률 = 1 - 변동비매출액
이 공식은 손익분기점에서 총공헌이익이 고정비와 같아지는 관계를 이용하는 공식이다.

계산 과정

1. 총비용 15,000,000원을 비율 2:3으로 나누면 고정비는 6,000,000원, 변동비는 9,000,000원이다.
2. 변동비율은 9,000,000원 ÷ 18,000,000원 = 0.5이므로 공헌이익률은 1 - 0.5 = 0.5이다.
3.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6,000,000원 ÷ 0.5 = 12,0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6,000,000원은 고정비 금액일 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아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6,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원이다.
② X: 9,000,000원은 변동비 금액일 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아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9,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원이다.
③ O: 고정비가 6,000,000원이고 공헌이익률이 0.5이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2,000,000원이다.
④ X: 15,000,000원은 총비용 금액일 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아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정비, 변동비, 총비용 자체를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비율 2:3을 먼저 비용 분해에 써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면 6,000,000원, 9,000,000원, 15,000,000원 같은 숫자에 바로 끌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익분기점 문제는 먼저 총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하고, 다음에 변동비율과 공헌이익률을 구한 뒤, 마지막에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누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 ÷ 공헌이익률이며, 비율 자료가 나오면 비용 분해를 먼저 한다.

NoteBase

문 1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여 순증감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④ 순자산변동표에서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을 말하며,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현금흐름표의 표시원칙과 순자산변동표·주석의 기재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표시하고, 예외적으로만 순증감액 표시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총액표시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따로 적는 방식이다.
순증감액 표시 = 유입과 유출을 상계한 순액만 적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현금흐름표의 현금 유입·유출은 원칙적으로 총액표시이다. 다만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순증감액 표시가 가능하다.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증가·감소 항목을 보여 주고, 현금의 이동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 변동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고,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경상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② X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순증감액으로 적는 것은 예외이다.
틀린 표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여 순증감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적을 수 있다."
올바른 표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적고, 거래가 잦고 총금액이 크며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만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 O
현물출자에 따른 유형자산 취득이나 유형자산의 교환처럼 현금 유입·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현금흐름표 본문이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 O
순자산변동표에서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이 되고,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이 된다. 증가와 감소의 예시를 올바르게 짝지은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총액표시와 순액표시의 원칙·예외를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현금흐름표는 유입과 유출을 먼저 각각 적는다는 점을 놓치면 예외 규정을 일반원칙처럼 오인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흐름표 선지는 먼저 "상계하지 않는다"가 원칙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원칙이 총액표시이고, 빈번·거액·단기만기 거래만 예외적으로 순증감액 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유형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현금흐름표는 총액이 원칙, 순액은 예외이고, 비현금의 중요한 거래는 주석 공시이다.

NoteBase

문 20. (주)서울은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저가기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보기>

항목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자산	₩800	₩1,000
당기매입	₩4,200	₩6,400
매입운임	₩900	
매출액		₩4,000
인상액		₩500
인상취소액		₩100
인하액		₩400
인하취소액		₩200

① ₩2,223

② ₩2,290

③ ₩2,700

④ ₩2,781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저가기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서 기말재고자산의 소매가와 원가율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기초재고자산 원가 800, 판매가 1,000, 당기매입 원가 4,200, 판매가 6,400, 매입운임 900, 매출액 4,000, 인상액 500, 인상취소액 100, 인하액 400, 인하취소액 200이다.
구해야 할 값은 기말재고자산의 원가이다.
주의할 조건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이므로 원가율은 당기 매입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이므로 인하액 순액은 원가율 분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말재고자산의 원가 = 기말재고자산의 소매가 × 원가율
원가율 = 당기 매입 가능 재고의 원가당기 매입 가능 재고의 소매가(인하액 제외)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에서는 순인하액을 분모에서 빼 보수적인 원가율을 적용하고,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재고가 당기 매입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순인상액은 500 - 100 = 400이고, 순인하액은 400 - 200 = 200이다.
2. 기말재고자산의 소매가는 1,000 + 6,400 + 400 - 200 - 4,000 = 3,600이다.
3. 당기 매입 가능 재고의 원가는 4,200 + 900 = 5,100이다.
4. 저가기준 원가율의 분모는 인하액을 제외하므로 6,400 + 400 = 6,800이다.
5. 원가율은 5, 100/6, 800 = 0.75이다.
6.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 3, 600 × 0.75 = 2, 700이다.

선지 판단

1번 X: 2,223은 매입운임 900을 원가에 넣지 않고 원가율을 4, 200/6, 800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매입운임은 재고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틀린 표현은 2,223이라는 금액이고, 올바르게는 기말재고자산의 원가가 2,700이다.
2번 X: 2,290은 매입운임을 누락하고 순인하액 200까지 분모에 포함해 원가율을 4, 200/6, 600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원가율 계산에서 운임과 인하액 처리를 잘못한 점이고, 올바르게는 매입운임을 포함하고 인하액은 분모에서 제외해 2,700을 구한다.
3번 O: 기말재고자산의 소매가 3,600에 저가기준 원가율 0.75를 곱하면 2,700이 된다. 선입선출과 저가기준을 모두 반영한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4번 X: 2,781은 매입운임은 포함했지만 순인하액 200을 분모에 포함해 원가율을 5, 100/6, 600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저가기준에서도 인하액을 분모에 넣는 처리이고, 올바르게는 인하액을 제외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2,700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매입운임을 원가에서 빼거나,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인데도 순인하액을 원가율 분모에 포함하는 데 있다. 1번과 2번은 운임 누락 함정, 4번은 인하액 처리 함정을 노린 선택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매재고법 계산형은 먼저 기말재고의 소매가를 구한 뒤, 어떤 원가율을 써야 하는지부터 판단한다.
선입선출이면 당기 매입분 기준, 저가기준이면 순인하액 제외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마지막에 원가율을 곱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은 인하액을 원가율 분모에서 제외하고,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은 기말재고를 당기 매입분 기준으로 계산한다.

NoteBase